

# 김용민브리핑

2016년 11월 14일 월요일

## 발행처 일곱시간행불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mailto: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b>아름다운재단</b>	<a href="http://www.beautifulfund.org">www.beautifulfund.org</a>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b>알싸한홍어</b>	<a href="http://alssahan.co.kr">alssahan.co.kr</a>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b>정성농장홍삼</b>	<a href="http://jeongseongfarm.com">jeongseongfarm.com</a>
안티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b>비타샵</b>	<a href="http://vitashop.co.kr">vitashop.co.kr</a>
예쁜 구멍이 쏠!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b>미궁장사랑</b>	<a href="http://jangsarang.com">jangsarang.com</a>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b>수아비스화장품</b>	<a href="http://www.suavisslab.com">www.suavisslab.com</a>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b>풍무양고기</b>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b>매트리스엠</b>	<a href="http://www.mattressm.com">www.mattressm.com</a>
진보가 만든 상품판매속은	032-519-4800
<b>내피알</b>	<a href="http://nepr.co.kr">nepr.co.kr</a>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a href="https://facebook.com/tartfarm13">facebook.com/tartfarm13</a>
<b>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키넥스점</b>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b>이담채김치</b>	<a href="http://edamche.com">edamche.com</a>
3D 실물 피규어 수공예품 제작	010-5633-6036
<b>메이드바이어스</b>	<a href="http://madebyus.co.kr">madebyus.co.kr</a>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b>전창걸의새싹땅콩차</b>	<a href="http://전창걸.com">전창걸.com</a>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b>좋은사람과플라워</b>	<a href="http://flowergood.co.kr">flowergood.co.kr</a>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b>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b>	<a href="http://cafe.daum.net/7000kim">cafe.daum.net/7000kim</a>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b>와우전복</b>	<a href="http://wowabalone.modoo.at">wowabalone.modoo.at</a>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b>연지연곰탕</b>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 박근혜에 세금내지 맙시다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100만 이상의 촛불로 세상은 이미 뒤집혔습니다. 그간 촛불이라면 덮어놓고 경기를 일으키던 보수신문들도 '위대한 시민의식' 운운하며 고무 찬양하기 바쁩니다.

'탄핵' '하야' '질서 있는 퇴진' 등 해법은 다양하지만, 박근혜가 식물 대통령이 됐고 더 이상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데에는 견해가 일치합니다.

상황이 이 정도쯤 됐을 때에 사리판별을 온전히 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면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즉각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잡이 보약'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과념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고 합니다.

전 국민의 1/50이 한자리에 모여 '하야'를 주장하는데도 들은 척 만 척 한다면 우리는 보다 강화된 공세의 프로세스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시민 불복종입니다.

대표적인 수단으로써 저는 납세 거부를 공언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동참을 제안합니다. 박근혜는 그간 국민의 세금을 탕진하던니 일부는 도둑질을 해서 최순실 일가와 나눠가졌습시다. 아울러 법인세를 더 내지 말라며 선심 쓰는가 싶더니 기업을 상대로 납 몰래 갈취하기까지 했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거머쥐고 있다면 국민세금은 앞으로도 범 죄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일곱시간행불그네'라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 박근혜의 국가권력 권한행사가 종식될 때까지 국세 납부를 거부합니다. 국가 공동체를 농락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권력은 국민의 이름으로 퇴출돼야 합니다. 세금 납부 거부는 그 실천의 시발(始發)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제가 강점한 한반도 내 국민에게 납세 거부와 일본 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불복종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부정한 대선결과로 당선돼 불법 집권 중인데다 온갖 악행과 무능으로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박근혜 권력은 총체적인 맥락에서 일제 강점시대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박근혜가 국민의 세금을 더 이상 손을 대지 않는 국면이 완성되면 그간 납부를 거부했던 모든 세금을 빠짐없이 내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은 커녕 '씨'라는 호칭도 과분한 박근혜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즉각 그 직을 내놓고 검찰 수사를 받으며 응당한 처벌을 받으시오. 당신은 이미 국민의 세금을 수령할 자격을 상실한, 왕조시대 표현으로 폐군(廢君)입니다.

###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 11월 14일(월) 1부 | 대국민제안 : 하야 때까지 납세거부합시다

[오프닝] 국세 거부해 박근혜 범죄자금 전용 차단합시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동아일보 보수언론 첫 "대통령 탄핵 절차 밟으라" 사실 게재

-동아 또 "검찰은 박근혜 '세월호 7시간'도 엄중 조사해야"

-조선일보 "박근혜, 금주 검찰 조사 후 피의자 신분 되면 그뻔..."

-현재 최순실 "난 몰라" 보름내내 잡아떼는 중

-정부, 정유라를 제2의 김연아로 만들려 했다

-지하철 이용 통계로도 확인된 '100만 촛불집회'

[뉴스듣기능력평가] 권력 속성 짙은 '로마인 이야기' 관련 퀴즈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당선되니 말 뒤집는 트럼프...미 전역 확산되는 반트럼프 시위

-'100만 촛불'에 지구촌도 놀랐다... "취, 사실상 실각했다"

[경제의 속살] 이원배 민중의소리 기자

-'100만 촛불' 보고 25년전 세상을 등진 9명이 생각났다

-[월요 경제학] "독점자본 생존위해 전쟁 야기" (폴 스위지)

[공화국논평] '탄핵' 공개적 요구한 김무성에 대한 종대조치

이것이 촛불 민심이다

東亞日報 사설로  
“대통령 탄핵하라”

지난 토요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130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박근혜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에 보수 일간지 동아일보에서도 박근혜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오늘은 1면에 사설을 실었는데요. 일부 소개한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최순실이란 일개 사인에게 건네 사유화하도록 했다. ‘대통령 권한의 양도’는 국민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 1조에 대한 심대한 위반이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탄핵 절차를 밟으며 하루빨리 국정 붕괴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

東亞日報 이 사설도  
“세월호 7시간  
엄중 조사해야”

동아일보의 또 다른 사설입니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도 밝혀야 한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관저에 계셨다’는 취지로 말했다. ‘관저’라면 청와대 본관 ‘집무실’이 아닌 사적 공간이다. 대통령이 마땅히 있어야 할 정위치가 아닌 데다, 상황이 급변했는데도 관저에 머물렀다니 그 까닭이 궁금하다. 검찰이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 구색 갖추기로 수사를 했다간 조직 해체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어디 있었나

세월호 가라앉던 2시간20분 동안 대통령 본 사람도 지지도 없었다. 박근혜는 그 시각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로부터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는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간 동안 대통령 본 사람도 지지도 없었다는 것.

오늘을 읽는 책 기사다슈 『게으름뱅이 정신분석』



한 거레도 사설로  
“박근혜 하야는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물꼬를 트다시피 한 한 거레도 대통령 박근혜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역시 1면에 실린 사설이다. “국민이 바라는 건 단 하나, 바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였다.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국민의 믿음을 저버린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되찾아오는 건 헌정 중단이 아니다. 오히려 헌정 체제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진전시키는 길이다. 이제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때다.” 박근혜가 물러난다면 이는 곧 시민혁명이 되겠다.

전국이 분노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SBS 검찰 “통일 대박은 최순실 아이디어”

최순실이 대북정책에서도 농단을 부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SBS 단독 보도다. 대통령 박근혜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다. 재작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 구상에 대해 이렇게 밝힌 것이다. 그런데 이 통일 대박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최순실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검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 연설문에서 대박이라는 비교적 값싼 표현이 나온다? 역시 값싼 머리에 나왔다. 이미 박근혜는 연설문의 표현 등에서 최순실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국민일보 국정원도 최순실이 주물렀나

국가정보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정보원 국내 정보 담당 추모 국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보고 대상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고리 권력으로 통하는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었다.

최순실의 비리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최순실을 옹호하기 위한 조사였다. 또한 추모 국장이 최순실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최순실과 정윤희를 조사한 국정원 직원들을 지방으로 좌천시켰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 검찰, '역시나' 최순실 알고 있었다

## 세계일보 '정윤희 문건'에 이미 최순실 거론

세계일보는 청와대에서 작성한 '정윤희 문건'을 2014년에 입수했다. 다 까지 못한 파일을 오늘 간 거 같다. 문건에는 정윤희의 국정농단 첩보와 함께 최순실의 이름도 거론돼 있다. 특히 문건에는 최순실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이 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희, 3위는 박근혜"라는 박관천 전 경정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그대로 적혀있었던 것이다. 문건을 작성한 청와대와 '정윤희 문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4년에 이미 최순실의 존재와 국정농단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이 무서워 이 문건의 진위조차 파악하지 못한 꼴이니 검찰은 문을 닫아도 하등 문제가 없을 쓸모없는 존재다.

## 세계일보 "박근혜는 최태민의 옛 애인"

이어서 세계일보 또 다른 보도. '정윤희 문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당시 문건 유출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의 USB도 압수했다. 한일 전 경위에 의하면 해당 USB에는 최순실과 관련된 첩보들이 저장돼 있었다고 한다. 박관천 전 경정의 진술과 여러 첩보에도 검찰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

한편 세계일보에 따르면 관련 문건에는 "십상시들과 정윤희의 모임에서는 공공연하게 '이 나라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희, 3위는 박근혜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더라도 자신의 옛 애인이 나온('낳은'의 오타로 추정) 딸을 어떻게 배척할 수 있겠느냐?'라는 극치의 말이 서로 간에 오가고 있다 함" 등의 내용이 있었다. 최태민을 (박근혜의) 옛 애인으로 최순실을 비선 실세로 인정하는 대목이다.

## 세계일보 수사보다 정치를 더 잘하는 검찰

2014년 세계일보가 비선실세 정윤희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보도하자 청와대는 '정윤희 문건'이 '지라시'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윤희 문건'의 실제적 진실을 인정했다. 지난해 공판에서 "정윤희 문건은 공무상 비밀문건"이라고 밝힌 것이다.

당시 수사를 받은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휘말릴까 전전긍긍했다고 한다. 일부 검사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집권 2년 만에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며 부담스러워했다고 한다. 그래서 2년 더 벌어진 셈이군.

### 태산 같은 정치 압박에 질식할 검찰

## 한국일보 우병우에 대해 전전긍긍...왜?

검찰이 '우병우 딜레마'에 빠졌다. K스포츠재단은 지난 6월 검찰이 롯데를 압수수색 하기 전에 롯데로부터 받아낸 기부금 70억 원을 돌려줬다. 이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검찰의 수사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K스포츠재단이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빌미로 70억 원을 받아냈는데,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고 돈을 돌려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롯데그룹 수사와 같은 중요 수사 정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전달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을 통해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도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을 제대로 수사한다면 검찰의 치부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 朝鮮日報 박근혜, 운명의 날이 다가 온다

검찰은 어제 대통령 박근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박근혜의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했다. 박근혜는 피의자 신분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고 한 것은 대통령은 혐의가 있어도 재임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특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박근혜의 조사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피의자가 대통령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 그래서 조선일보는 모레와 글피쭈 박근혜의 운명이 결정될 것 같다고 사설에서 적었다.

## 朝鮮日報 최순실 끝까지 오리발 내미는 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은 검찰 조사에서 보름가까이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다. 최순실은 JTBC에서 보도한 태블릿 PC에 대해 "100% 내 것이 아니다"는 진술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현 정권의 문화체육 정책에 간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난 정책을 짤 능력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순실을 압박하기 위해 독일에 체류 중인 정유라를 국내에 강제 송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순실은 딸 얘기가 나오면 걱정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지만, 계속 혐의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

## 朝鮮日報 정유라는 제2의 김연아 꿈꿨다

정유라 후원 프로젝트라고 의심을 받는 대한승마협회의 '중장기 로드맵'을 보면 기가 차는 대목이 하나 있다. '김연아 같은 국민적 우상 탄생을 후원한다'는 내용이다. 정유라를 제2의 김연아로 만들겠다는 요지다. 김연아네는 빠듯한 생활 탓에 모녀가 스케이트와 의상도 직접 수리했다. 같은 올림픽의 꿈을 가졌다는 승마 모녀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부터 긁어모았다. 최순실·정유라 모녀는 어려움 속에서 꿈을 좇는 모든 스포츠 유망주를 절망에 빠뜨렸다. 조선일보 태평로 칼럼, 김동석 스포츠 부장의 글이었다.

### 이정현의 속 뻘히 드러나는 수

## 東亞日報 “반기문 돌아오고 전당대회 하자”

어제 새누리당 원내외 인사 91명은 당을 해체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김무성 전 대표 등 새누리당 대선주자들은 대통령 박근혜를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내년 1월 조기 전당대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장 비주류 측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꼼수”라고 날을 세웠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친다. 이를 의식한 친박계 지도부가 전대 날짜를 1월 말로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 전국은 촛불로 '국민대통합'

## 국민일보 대구·부산도 “朴 퇴진·새누리 해체”

지난 토요일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국대회와 촛불행렬이 이어졌다. 특히 대통령 박근혜가 태어난 대구와 여당 텃밭인 부산에서도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를 외쳤다. 또한 청소년들의 시국선언도 잇따랐다. 광주는 물론 강원도와 제주도에서도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의 퇴진을 촉구했다.

## 한국일보 지하철 통계로 확인된 100만 촛불

대통령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로 광화문광장 일대가 촛불로 뒤덮였다. 주최 측은 참가자 규모를 100만 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지하철 이용 통계로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광장 일대 지하철역 12곳을 이용한 시민은 170만 명이 넘었다. 지난해보다 100만 명 이상 증가한 숫자다.

또한 시내버스를 이용해 집회에 참가하거나 지방에서 전세버스와 고속버스, KTX 등 열차를 이용해 상경한 인원까지 고려하면 주최 측은 추산한 100만 명이 허수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서울 도심에서 100만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처음이다.

###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의 대국민 사과

## 중앙일보 “나 같은 국무위원 안 나와야”

박근혜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페이스북에 사죄의 글을 올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정말 사죄드린다” “저와 같이 불행한 국무위원이 다시는 이 땅에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힌 것이다. 류길재 전 장관은 온건 대화파로 남북대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대북 강경 기조가 이어지면서 번번이 좌절됐다. 류 전 장관은 “아이들이 ‘대통령 퇴진’을 외쳐야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오늘의 칼럼

## 한겨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 한겨레 김보협 디지털에디터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다. “한국 근현대사라는 큰 틀에서 보면 중요한 변곡점마다 시민의 힘으로, 민중의 힘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조금씩 앞으로 전진시켜 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매 시기 그 힘이 정치적 승리로 귀결된 것은 아니었다. 2008년 촛불이 민주주의의 퇴행을 멈춰서려 했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4·19혁명은 박정희의 5·16쿠데타에 꺾이고 말았다. 1979년 서울의 봄은 이듬해 5월 광주를 짓밟은 전두환의 집권으로 이어졌고, 1987년 6월 항쟁의 단물은 노태우가 빨아 먹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 광장에 선 시민들과 야권의 말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박근혜의 말일 수도 있다. 마지막 남은 지지자 5% 중에 말 잘 듣는 군 장성이나 북한에 ‘총 몇 발 쏘 달라, 대포면 더 좋고...’라고 공작할 정보기관의 고위급 인사가 없을까. 느슨한 틈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또 보수 기득권 세력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자신들의 가장 약한 고리가 돼버린 박근혜를 버리고 자신들의 체인을 다시 단단하게 이어줄 대체제를 찾으려 할 것이다. 지지층을 복원하려는 재집권 시나리오를 만지작거릴 것이다.

그런 무모한 시도들이 파고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눈을 부릅뜨고 마주잡은 손을 더욱 굳세게 잡는 것,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되뇌면서 이 싸움을 즐기는 것, ‘박근혜 이후’를 대비하며 내가 꿈꾸는 나라를 상상하는 것, 그 상상을 바탕으로 힘을 배가할 지혜를 찾는 것이다.”